

지난주일 임직자 선거 결과, 안수집사 7명, 권사 5명 피택 오늘은 장로 5명, 안수집사 3명, 권사 5명 피택 위한 2차 투표 있어



집사피택자: 7명

박중순, 공중서, 서준규, 조영물, 이원철, 윤의탁, 심동욱

권사피택자: 5명

고유자, 백숙자, 은영희, 정영숙, 김운선

따라서 오늘은 장로 5명, 집사 3명, 권사 5명 피택을 위한 2차 투표가 실시된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신여고 1층 로비에서 투표는 지난주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며, 올해 6월 30일까지 등

지난주일 총투표인원은 931명이었다. 비가 오는 중에도 투표에 많이 참석해준 성도들께 감사드린다. 1차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피택자: 장로 - 없음 / 안수집사 - 7명 / 권사 - 5명

피택기준:

장로피택 - 유효표수 920표, 무효표수 11표, 당선확정 614표

집사피택 - 유효표수 921표, 무효표수 10표, 당선확정 461표

권사피택 - 유효표수 923표, 무효표수 8표, 당선확정 462표

록한 교인으로 세례, 입교를 받은 모든 교인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2차 투표 후보자는 1차 투표결과 다득표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장로9명, 집사6명, 권사10명(2배수)이 선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함즐함울 2면과 선거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지만 성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님의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을 뽑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랑노인종합복지관, 7월 부터 위탁경영 시작해

교회내 각 선교회와 사역팀, 자원봉사 및 복음 전파 좋은 기회 열려



우리교회가 금년 7월부터 위탁경영하게 될 서울특별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www.eorsin.com)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 2동에 위치하고 있다. 복지관 규모는 대지 451.70평에 건평 757.88평이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4층과 옥상 그리고 야외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용실, 세탁실, 목욕실, 경로식당, PC방, 상담실, 컴퓨터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체력단련실, 사회교육실, 장기바둑실, 도서실, 게이트볼장, 강당 등을 건물내 주요시설로 갖추고 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이며, 건립은 서울시 주관으로 1999년에 개관했다. 시설이용은 회원제로 이루어지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매일 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장애 노인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

어 노인복지시설로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구비되어있다. 복지관에서 주중에 이루어지는 사회교육 내용으로는 영어교실, 일어교실, 중국어교실, 서예, 수지침, 인터넷 교실, 컴퓨터반,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포크댄스, 장고교실, 합창반, 찜즈무브, 노래교실, 생활체조, 드림핑공교실, 당구교실, 게이트볼 교실등이 있고, 동아리 활동도 이루어지며, 고령자 취업알선 사업과 늘푸른 공장(공동작업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용과 소득보장을 위해 복지관 내 작업장을 운영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면에서 계속)



4부 예배 “오늘”, 서울 칸티클 합창단 공연과 양창순 박사 특강 있어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는 4부 예배 “오늘”의 컨셉은 “꼭 함께 살아가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드려진다. 순서는 오늘 연주팀의 음악 연주와 게스트로 초청된 서울 칸티클 합창단의 공연과 ‘대인관계’ 심리학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양창순 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3면에서 계속)



30CUP WORSHIP SERVICE

30대 사역의 모토, 구체적으로 설명 하는 시간 가져



7월로 네 번째 모임을 갖게 되는 30CUP WORSHIP SERVICE는 17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된다. 참석하게 될 모든 지체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설교는 30CUP을 담당하는 김현령 목사가 담당하며, 예배중에는

주찬양선교단 창단사역자인 류희현선생(숭실대 강사)이 송명희시인의 신앙고백인 ‘나’를 연주하게 된다. 7월에 드리게 되는 예배를 통해 30대 사역의 모토인 ‘Caring for Unreached People’의 구체적인 의미와 기도제목이 전달될 것이다.

III 05년 임직자 선거 공고 (2차) III

주님의교회에서 아래의 일정으로 임직자 피택을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및 입교인들은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일정 및 기준

- **공동의회** : 2005년 7월 3일(주일) 오전 8시 30분 개회
- **투표장소** : 정신여중고 본관1층
- **피택인원** : 장로 5인, 집사 3인, 권사 5인
- **피택기준** : 장로 - 투표자의 2/3이상 득표
집사, 권사 -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
- **후보자선정**
 - 1) 1차투표시 : 당회공천자
 - 2) 2차투표시 : 1차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특기사항 참조)
 - 3) 3차투표시 : 2차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특기사항 참조)
(※ 3차투표는 장로만 실시합니다.)

■ 투표과정

- 1) 1차투표 : 7월 3일(주일) 오전 8:30~오후 1:30
- 2) 1차투표결과발표 : 7월 6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 3) 2차투표 : 7월 10일(주일) 오전 8:30~ 오후 1:30
- 4) 2차투표결과발표 : 7월 13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 5) 3차투표 : 7월 17일(주일) 오전 8:30~ 오후 1:30 (장로투표만 실시)
- 6) 3차투표결과발표 : 7월 20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 특기사항

1차투표 결과 피택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부족수의 2배수 다득표자 순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2차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2차투표 결과 장로 5인 중 한명도 피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장로만 3차투표를 실시 하되 후보선정은 2차투표결과 부족수의 2배수 다득표자 순으로 합니다. 최종, 3차 투표로 선거를 마감합니다.

후보자
사진

이름 (교구-구역)
출생/등록/수세
현재봉사부서/과거봉사부서

장로후보 공천자

〈1차투표결과 다득표순〉



김양자 (4-5)
44년생/91년등록/68년수세
호스피스사역팀장/주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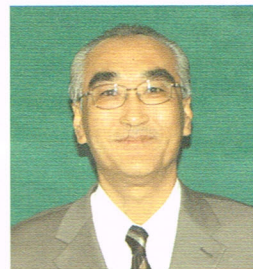
한득현 (3-5)
46년생/92년등록/79년수세
새가족사역팀/소년부장



신정웅 (4-6)
44년생/95년등록/78년수세
제1남선교회장/경조부장



이성우 (5-28)
46년생/88년등록/78년수세
/장학위원장



조원호 (7-6)
49년생/91년등록/88년수세
농어촌선교부장/중등부장



최상인 (5-25)
57년생/90년등록/87년수세
청년부장/초등부장



하승락 (7-16)
49년생/89년등록/85년수세
구역장/경조부장



김성구 (7-18)
52년생/90년등록/87년수세
해외선교지원팀장/재정부장



박중규 (7-3)
48년생/89년등록/90년수세
계수부장/안내부

집사후보 공천자

〈1차투표결과 다득표순〉



최성준 (7-13)
50년생/94년등록/85년수세
경리부장/시온찬양대



김학원 (2-14)
56년생/01년등록/71년수세
의료선교팀/호산나찬양대



동현수 (2-17)
56년생/95년등록/88년수세
청년부장/고등부교사



박중규 (6-5)
50년생/91년등록/92년수세
시온찬양대/구역장



김승기 (3-6)
52년생/99년등록/90년수세
소년부장/소년부교사



이열 (3-3)
50년생/99년등록/82년수세
구역장/살롬찬양대

권사후보 공천자

〈1차투표결과 다득표순〉



송경혜 (5-26)
52년생/90년등록/81년수세
중등부교사/호산나찬양대



최정운 (1-10)
53년생/94년등록/86년수세
썩트네부장/중보기도사역



이봉순 (7-2)
52년생/90년등록/84년수세
새가족사역팀/봉사부



김설희 (5-10)
54년생/93년등록/80년수세
시온찬양대/권찰



이희순 (7-12)
53년생/92년등록/69년수세
소년부교사/해외선교부



박서연 (5-24)
54년생/92년등록/84년수세
시온찬양대/호스피스사역팀



우진선 (2-6)
56년생/97년등록/80년수세
중등부교사/봉사부



유영욱 (6-1)
52년생/98년등록/87년수세
썩트네교사/권찰



김현주 (6-3)
56년생/92년등록/93년수세
중등부교사/시온찬양대



백설희 (3-4)
57년생/90년등록/89년수세
호산나찬양대/경조부

2005년 임직자명단

가정훈련프로그램 모임, "우리는 주님의 가정을 꿈꿉니다"



2005년 7월 3일 오후 1시 30분, 제2자모실에서 모임

2004년 3월부터 진새골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 참여했던 아홉 가정이 중심이 되어 가정사역팀은 1년 3개월간 매주 금요일 구역으로 같이 모여 공부하며 사역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주님의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을 가졌다. 그 동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경험한 성도들 외에도 가정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준비했는데 15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참석해 약 50명정도의 뜻있는 모임이 되었다. 심동욱 집사는 그 동안 활동했던 1년간의 준비모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이어 아버지 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던 김주옥 집사의 간증도 있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움 가운데 만나 주신 주님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또한 참석한 모든 가정들이 돌아가며 모임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나누었는데, 아버지학교를 졸업한 집사들의 많은 참여에 아버지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참여도와 사역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모임의 귀한 결실은 그간 홀어져 있던 사역에 동참할 지체들을 하나로 모아 주셨다는 것과 또한 전문분야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는 몇 명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그 동안 준비하며 기다려오던 가정사역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8월 21일 〈아

버지학교〉로 부터 시작된다. 주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5주 동안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벌써부터 등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교우들과 앞으로 등록할 모든 교우들에게, 가정사역팀은 최상의, 최선의 〈아버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 중에 있다. 이번 기회에 가능한 주님의교회 많은 아버지들이 입학하여 식어진 열정과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에 합한, 각 가정에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버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길 기대한다.



(1면에 이어서)

중랑노인종합복지관, 7월 부터 위탁경영 시작해 교회내 각 선교회와 사역팀, 자원봉사 및 복음 전파 좋은 기회 열려



시설 운영은 정영열 총무부장을 비롯하여 25명의 복지사들이 체계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예배는 수요일마다 드리고 있다.

앞으로 부교역자들이 직원예배를 순회하며 인도하게 되고, 교회내 각 선교회와 사역팀에서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 노인종합복지관을 집중적으로 봉사하면 매우 좋을 것이다. 성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담, 진료, 목욕봉사, 밀반찬, 가정봉사, 행사지원, 보수지원, 도배장판, 차량지원 등이다. 자원봉사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이 우리교회에게 열린 셈이다. 앞으로 우리교회가 위탁경영하게 되는 중랑종합복지관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와 기도로 돌기를 기대한다

(1면에 이어서)

4부예배 "오늘", 서울 칸티클 합창단 공연과 양창순 박사 특강 있어

서울 칸티클 싱어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창단되었다. 단원들은 음악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성악 또는 합창지휘를 전공한 장래가 유망한 음악도들로서 모두가 기독교인들이다. 서울 칸티클 합창단은 소년원, 군부대, 양로원, 고아원, 병원 등을 방문하여 봉사와 음악으로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컨셉에 맞춰 대인관계에서 빛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하며 함께 고민하며 방송과 많은 저서를 쓴 양창순 박사를 모시고 특강을 듣는다. 이 주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특별히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며, 믿는 교우들에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믿는 사람들끼리 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살게 되길 기대한다.

4교구 수련회,

광릉 진광 전원교회에서 7월 28일 - 30일까지 열려

4교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주제로 7월 28일(목)부터 7월 30일(토)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면에 있는 진광 전원 교회에서 교구 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39)는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을 갈급하게 기대하는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찬양과 예배, 묵상의 시간이 펼쳐질 예정이다.

첫째 날(28일)은 자기소개와 더불어 조별연극제, 바비큐 파티를 통해 마음 문을 열고, 둘째 날(29일)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간증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저녁

에는 캠프파이어와 동시에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셋째 날(30일)에는 폐회 예배를 끝으로 귀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광릉수목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자연의 청취를 만끽할 수 있으며, 교구 식구들 간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수련회 참가문의는 이인호목사(011-1706-2265), 김현덕장로(011-217-4784), 신정웅집사(011-236-0661), 하태원집사(019-313-3073)

누구에게
해도
좋다.



제2남선교회 자원봉사 다녀와

정신지체장애인 목욕봉사해

제2남선교회는 7월 정기모임을 7일(목요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산중에 소재한 정신지체생활인 시설인 “예가원”에서 목욕봉사로 가졌다.

당일 행사는 정신지체장애인 남자 36명의 목욕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참석한 회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장애인들의 목욕을 도와주었는데, 목욕이 끝난 후에 장애인들의 시원해하는 모습과 고맙다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때를 밀어 주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때도 함께 씻어내는 기분이었고, 장애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1시간 반 동안의 목욕봉사를 끝내고, 장애인친구들과 친교를 하면서 준비한 피자도 간식을 함께 나누었다. 여러모로 바쁜 중에도 장애인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 봉사함으로 순수한 봉사가 주는 의미를 깨닫고 다음을 기약하며 회원 모두 기쁨으로 발길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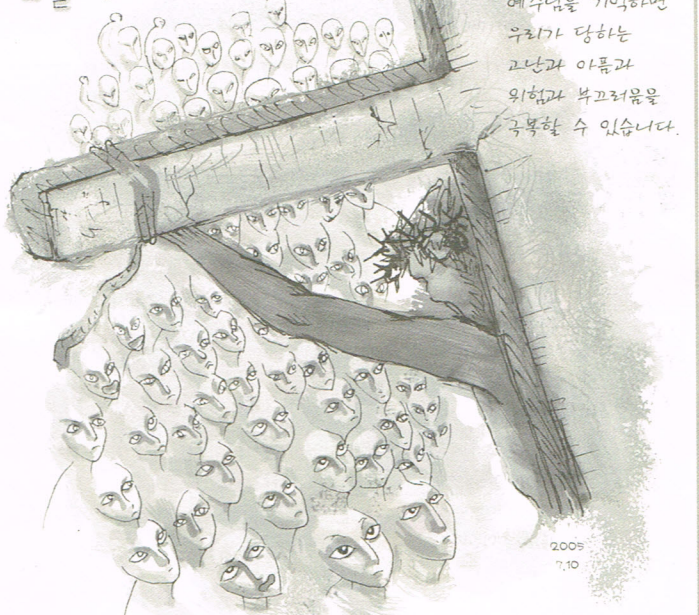
2남선교회는 8월에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하여 우리교회에서 개최하게 되는 “아버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5 여름 청년부 선교여행, 중국과 몽골로

이번 여름 청년부는 중국과 몽골 두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난다. 8월 말로 예정된 선교여행에는 25명 안팎의 청년부 인원이 참가하게 된다. 중국으로 떠나는 선교여행은 5박 6일간 진행되며, 중국 S시를 거쳐서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 문화, 이슬람 문화 유적지 등을 돌아보게 된다. 특히 이번 선교여행은 중보기도, 서진 선교의 흔적 찾기, 가정교회 지도자와의 만남, 영상 선교 등의 활동을 통해, 백 투 예루살렘 운동으로 대표되는 복음의 서진 운동에 참여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로 떠나는 선교여행은 5박 6일 동안 몽골의 울

람바토르 대학 및 몽골 국제대학에서 캠퍼스 선교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현재 중국 선교는 인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몽골 선교는 더욱 많은 지체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 선교 여행을 위해, 청년부 해외선교사역팀에서는 7월 중순부터 6주 동안 선교사와 함께 선교학교를 계획중에 있고, 중보기도회도 매주 진행될 예정이다. 선교학교에서는 지역 정보, 선교 여행의 의미에서부터 실질적인 준비 사항 등, 선교 여행 전반에 걸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7시, 청년부 세계선교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청년부 선교여행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은 <http://galatians.cyworld.com>을 통해서나 해외선교사역팀장 나혜정(011-9589-9835)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오늘 기도



영어예배 첫 야외행사



7월 2일(토) 주님의교회 영어예배팀(English Ministry, 약칭 EM)이 래프팅(White Water Rafting)을 첫 야외행사로 다녀왔다. 다양한 참여자들 중에는 한국인, 교포, 그리고 외

국인도 있었다. 처음으로 영어예배 참가들이 가진 야외행사여서 매우 좋았고 주일에만 잠시 예배드리고 갔던 사람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 Teamwork이 필요한 래프팅을 통해 서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서로 물에 빠뜨리고 즐기면서 친밀감은 더욱더 깊어졌다. 주님의교회 영어예배(EM)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체간에 서로 나누고 느끼는 영적 관계와 친밀감,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 그 목표가 될 것이다. 영어예배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유년부 학부모 초청 예배 드려

학부모 초청예배가 다음 주일(17일), 소예배실에서 11시10분부터 진행된다.

이 예배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학부모 초청예배에서는 여름성경학교의 찬양을 배우는 시간과 홍보시간 그리고 반별 학부모와 자녀의 기념촬영시간을 가

질 예정이다. 이 예배는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함으로써 사랑을 전달하고, 부모와 어린이와 교사가 서로에게 축복송을 불러주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그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홍보 동영상을 보면서 여름성경학교의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어와나 여름일정



어와나 클럽의 7월 일정은 바쁘다. 8월 달은 방학이기 때문에 어와나 클럽이 문을 열지 않는다. 7월 16일은 1학기 종강하는 날이기에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여 출석상도 나누어 준다. 출석 상에는 교회학교 출석상과 어와나 클럽 출석상으로 구분되어 주어진다. 7월 23일은 네번째 주로 쉬게 되어 있고, 마지막 7월 30일은 유년부 여름 수련회와 겹치는 관계로 클럽이 문을 닫게 된다.

비하고 있으며, 단원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1학기 종강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헤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학기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의 어와나 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2006년에는 초등학교 3-6년생의 클럽모임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달란트 잔치에는 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것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함께 준